

유튜브 동영상 속 죽음과 삶을 통한 웰다잉(well-dying)과 웰에이징(well-aging) 연구

권은¹, 강경희², 송현동³, 구진희⁴, 김광환^{5*}

¹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²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³건양대학교 글로벌호텔관광학과,
⁴목원대학교 SW교양학부, ⁵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A study of well-dying and well-aging through death and life in YouTube videos

On Kwon¹, Kyung-Hee Kang², Hyeon-Dong Song³, Jin-Hee Ku⁴, Kwang-Hwan Kim^{5*}

¹WellDying Convergence Laboratory, Kony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onyang University,
³Department of Global Hotel & Tourism, Konyang University, ⁴The college of SW liberal arts, Mokwon
University, ⁵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요 약 유튜브 동영상은 해당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확보하고 있으며 시청자의 선호도와 비선호도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최근 죽음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조사하고 삶, 웰다잉, 웰에이징 등과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한국인의 건강한 삶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기간 및 대상은 2019년~2021년에 업로드 된 동영상 13편이다. 조사 결과 의사를 포함한 25인의 화자를 확보하였다. 동영상 화자들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죽음 논의를 다채롭게 전개하였는데 핵심 사항으로는 삶의 진정한 가치, 두려워할 필요 없는 죽음, 희망의 소중함, 죽음의 자연스러움 등이 있었다. 삶, 죽음, 웰에이징, 웰다잉 등 4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11개의 전문가 관점을 4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하였다. 특정 시기에 추출한 13편을 연구하였다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튜브 동영상이 자유로운 소통의 장(場)임을 밝혔다. 그것은 향후 우리 삶의 건강 유지와 향상, 융복합 연구 응용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주제어 : 죽음, 삶, 웰다잉, 웰에이징, 유튜브, 융복합

Abstract YouTube videos secure the latest trends in the field and provide viewers' preferences and non-preferences. This study analyzes the discussion of death in recent YouTube videos and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well-dying, and well-ag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y life for Koreans by exploring relevance. The survey period and target are 13 videos uploaded on YouTube from 2019 to 2021.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it was possible to encompass 25 speakers who were discussing death centered on doctors. Video speakers in charge of various areas conducted various discussions on death from the perspective of experts. The key points are the true value of life, death that you don't need to fear, the importance of hope, the naturalness of death, etc. 11 expert perspectives are measured into 4 types based on 4 criteria: life, death, well-aging, and well-dying. Despite the limitations of studying 13 extracted at a specific time, this study revealed that YouTube videos are a place for free communication. It can contribute in part to maintaining and improving the health of our lives in the future and researching convergence.

Key Words : death, life, well-dying, well-aging, YouTube, convergenc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the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C2A04092504)

*Corresponding Author : Kwang-Hwan Kim(kkh@konyang.ac.kr)

Received November 26, 2021

Revised December 20, 2021

Accepted February 20,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2

1. 서론

유튜브[YouTube]는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이자 뉴스와 정보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매체 또는 미디어이다. TV, 신문, 포털,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들은 경쟁과 보완 관계를 형성하면서 현대인들에게 다채로운 뉴스와 정보를 제공한다[1].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매일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며 삶을 영위한다. 우리가 유튜브라는 매체와 그곳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에 주목하는 우선적인 원인은 그것의 최신성(最新性)과 무관하지 않다. 유튜브 동영상의 최신성 곧 가장 새로운 성질은 본 연구의 가치 확산을 돕는다.

이 자리에서 조사하고 분석하는 동영상들은 공통적으로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우리는 각각의 동영상에 담긴 죽음에 관한 주목할 만한 견해를 수집하고 그것의 핵심이 ‘삶’과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웰다잉[well-dying] 요소, 웰 에이징[well-aging] 요소와 결속되어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죽음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죽음의 현실이 가져다주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삶 그것 자체의 단절을 의미한다. 인간이 죽음 앞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것처럼 뚜렷이 느끼는 것은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죽음은 개인적인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죽은 이가 관계를 맺은 삶의 구조에서 불가분리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2].

웰다잉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신조어로 국립국어원이 개통한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 사전에는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웰다잉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가 본인 뿐 아니라 남겨질 가족을 위해서도 유익할 것이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다[3].

웰에이징은 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토대로 노화를 긍정적인 변화과정으로 수용하고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자아통합의 발달과업을 목표로 하는 나이 들어감을 의미한다[4].

유튜브는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매체이다. 그곳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들 속에서 유의미한 죽음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삶과 연결할 수 있다면 근사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유튜브와 그곳에 탑재되는 동영상은 시청자들에게 배

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러닝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5,6].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죽음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삶, 웰다잉, 웰에이징 등과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한국인의 건강한 삶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유튜브 동영상 속의 죽음이 그것 자체의 논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이나 웰다잉 또는 웰에이징 등 관련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삶의 가치, 희망의 소중함, 죽음의 자연스러움 등을 익힐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수집한 13편의 유튜브 동영상이다. 본 연구는 죽음 또는 삶을 주제로 삼은 유튜브 동영상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유튜브에 주목한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진행하였다. 각각의 동영상은 5분부터 50분 10초에 이르는 다양한 재생 시간을 갖고 있었고 여기에는 죽음이나 삶에 관한 논의가 노출된다는 공통점이 보였다. 다음의 Table 1-1과 Table 1-2는 동영상들의 제목, 출처, 업로드 날짜, 재생 시간 등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1-1. 13 YouTube Videos 1

N	Title
13-1	<What's precious to know, witnessing a lot of death>
13-2	<It's about death that you don't want to meet in your life>
13-3	<There's a world after death?>
13-4	<What is death? Life is more precious because of death>
13-5	<Death is not extinction, but transition.>
13-6	<Death and Life>
13-7	<Death from forensic perspective>
13-8	<Would death be easier for a doctor than for a normal person?>
13-9	<Remember the death! Life will change.>
13-10	<"How do you want to die?" We must live in preparation for death.>
13-11	<To the young men of this land who are contemplating death.>
13-12	<People waiting to die...That day on death row.>
13-13	<Death is hope.>

Table 1-2. 13 YouTube Videos 2

N	Source	Upload Date	replay time
13-1	Change Ground	2021. 2. 26	28:07
13-2	YOU QUIZ ON THE BLOCK	2020. 8. 20	11:41
13-3	Yozoh's book, what's this?!	2020. 6. 16	5:00
13-4	Square Escape	2020. 4. 11	6:44
13-5	Una Broadcasting Corporation	2020. 8. 13	25:19
13-6	KBS2	2020. 4. 22	16:57
13-7	KBS2	2020. 12. 23	50:10
13-8	A Doctor Friend	2020. 8. 15	9:26
13-9	EBS	2019. 3. 22	22:54
13-10	Sapiens Studios	2020. 12. 6	7:05
13-11	The Message LAB	2020. 12. 14	5:24
13-12	Mindgil	2020. 6. 18	13:29
13-13	The Story of Death	2020. 9. 21	5:00

2.2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 죽음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경우를 조사하였다. 해당 동영상들에는 죽음을 심층적으로 바라보거나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출현하였다.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자신의 전공 또는 영역에서 남다른 식견을 보여주는 전문가의 등장은 시청자의 신뢰도를 높이기에는 충분하다. 전문가들의 검증된 진술 또는 표현은 적절한 조사방법으로서 기능함은 물론이고 연구의 타당성과 가치를 드높일 수 있다. 우리는 죽음을 다루는 동영상들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화자(서술자)의 직업(일)에 의한 공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전문가의 특정한 시각 또는 관점을 반영하였다. 4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11개의 전문가 관점을 4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하였다. 각각의 동영상에서 이해하는 죽음, 삶, 웰다잉, 웰에이징의 상호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동영상 조회 수, 댓글 개수, 호감도 횟수, 비호감도 횟수 등으로 확인 가능한 죽음 논의의 대중성을 포괄하였다.

3. 연구결과

3.1 화자(서술자)의 직업(일)과 죽음

동영상에서 죽음이라는 화두(話頭)를 가장 설득력 있게 주도하는 화자의 직업(일)은 의사(醫師)이다. 전체 25인의 화자 중 온전히 의사로서 활동하는 인원은 15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김범석, ○승훈, 유성훈, 장진석, 김귀

락, 성연재, 김형준, 박종진, 김종훈, 황동연, 전경욱, 김태규, 최해원, 성장훈, 김무연 등 15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의사이면서 교수로 활동하거나(활동했거나) 아니면 의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활약하는 경우가 있으니 정현채와 유성호가 여기에 해당한다. 의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한 교수로서는 김상욱과 셸리 케이건이 있는데 전자는 물리학 박사이고 후자는 철학 박사이다. 도올의 경우 한때 교수로서 활동하던 시기도 있으나 언젠가부터 철학자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므로 철학자로서 규정하였다. 도올은 셸리 케이건과 함께 철학이라는 공통 매개를 갖고 있기도 하다. 조정민과 윤득형은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함영준은 기자 출신이라는 중요한 특성을 갖는다. 장례지도사로서의 ○은이 역시 주목할 만한 인물이고, 가수 박진영은 일반인으로서 죽음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남겼다. 요약하자면 25인의 화자 중에서 15인은 의사로, 2인은 의학 관련 교수로, 2인은 의학과 무관한 교수(물리학, 철학)로, 2인은 목사로, 1인은 철학자로, 1인은 기자로, 1인은 장례지도사로, 1인은 가수(일반인)로 규정할 수 있다. 25인의 화자 중에서 죽음과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직업(일)으로는 의사, 의학 관련 교수, 장례지도사 등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다음의 Table 2는 유튜브 동영상 화자(서술자)의 직업(일)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2. Job(Work) of YouTube Videos Speakers(Narrators)

N	Name of Speakers(Narrators)	Job(Work)
13-1	Kim B. S.	Doctor
13-2	Park J. Y., ○ S. H., ○ E. Y.	Singer, Doctor, Funeral Director
13-3	Kim S. W.	Professor(Physicist)
13-4	Shelly Kagan	Professor(Philosopher)
13-5	Jung H. C.	Professor(Doctor)
13-6	Do-ol(Kim Y. O.)	Philosopher(Professor)
13-7	Yoo S. H.	Professor(Forensic Doctor)
13-8	Yoo S. H., Jang J. S., Kim G. R., Seong Y. J., Kim H. J., Park J. J., Kim J. H., Hwang D. Y., Chun K. W., Kim. T. G., Choi H. W., Seong C. H., Kim M. Y.	Doctor
13-9	Yoo S. H.	Professor(Forensic Doctor)
13-10	Yoo S. H.	Professor(Forensic Doctor)
13-11	Cho J. M.	Minister
13-12	Ham Y. J.	Journalist(Professor)
13-13	Yoon D. H.	Minister

3.2 전문가의 관점과 죽음

3.2.1 의학의 관점

본 연구에서 의학의 관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의사 15인과 의학 관련 교수 2인을 합하면 25인의 화자 중에서 17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의사 또는 의학 관련 교수는 직업이나 일의 특성으로 볼 때 환자(患者)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지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의사 또는 의학 관련 교수는 환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남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얻을 확률이 높다.

물론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근대의료기관으로서의 병원에서 탐색하거나 정리하는 죽음은 기능적이거나 전문적인 이해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7]. 오늘날 의학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는 크게 2가지 특징이 개입한다. 첫째, 죽음을 의학의 패배로 인식하여 첨단 기술을 통해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것이고 둘째, 그러한 저항을 법률, 윤리적 원칙, 치료지침이라는 도그마를 통해 합리화하는 것이다[8].

최근 의학교육계에서 '의료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인문사회과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흐름은 위와 같은 죽음을 대하는 기능적이고 전문적인 관점과 무관하지 않다. 곧 의학의 비인간화와 의료진의 의사소통능력 부족을 보충하려는 시도로서 의료인문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9]. 우리는 비인간화된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의학의 관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학과 함께 물리학, 철학, 종교(목사) 등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① 의사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재정비할 수 있다. 곧 죽음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계기이다. 돈, 권력, 명예 등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추구하던 가치들도 죽음 앞에서는 부질없다. 우리가 있고 살았던 진정한 가치로는 가족, 희망, 사랑 등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잘 살아야만 잘 죽을 수도 있다. 죽음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면 더 풍요롭고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 의사에게 '죽음'은 일반인에 비해서 조금 더 담담하고 조금 더 익숙하다.

② 교수

A 근사체험

죽음과 관련한 중요한 영적인 체험으로 근사체험[近死體驗, Near Death Experience]이 있다. 이는 심장이 멎었을 때 곧 의식이 없었을 때 겪은 체험을 가리킨다. 누군가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날 경우 근사체험 또는 임사체험(臨死體驗)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에 따르면 이 체험은 4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 피동성이다. 그것은 저쪽에서 찾아오는 체험으로서 대개 우발적인 사고를 당해서 겪게 된다. 둘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다. 셋째, 깨달음과 통찰을 제공한다. 넷째, 일시적이다. 심폐소생술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축적되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런 점에서 근사체험은 현대인에게 중요하다.

B 법의학

법의학[法醫學, forensic medicine]은 응용 의학의 한 분야로서 의학을 기초로 하여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 관계를 연구하고 해석하며 감정하는 학문이다. 법의학은 죽음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여할 수 있다. 법의학자[法醫學者, forensic doctor]는 의학적, 과학적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거나 사인과 사망경위를 밝히는 학자이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 곧 죽음을 타자화(他者化)한다. 그러나 사실 죽음은 우리네 삶의 자연스러운 마지막 과정이다. 주체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중지부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는 비극적이다. 삶이 주체적이었다면 그것의 마지막도 주체적으로 준비해야겠다. 스스로의 마지막을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삶을 향한 넘치는 투지를 확인하게 된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자 결정일 수 있다. 인생을 끝낼 때 그 스토리를 미리 계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2.2 물리학의 관점

우주에는 살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지구를 제외한 어디에도 생명체는 없다. 과학자에게 죽음은 자연스러운 상태 곧 우주에서 가장 보편적인 상태이다. 죽음 이후에도 영속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인간의 몸을 이루는 원자는 그 형태는 변하지만 원자 그 자체는 영속한다. 원자는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다. 앞으로도 우주가 사라지지 않는 한 존재할 거다. 우주가 존재하는 한 우리 몸

의 일부는 영원히 우주와 함께 존재하게 된다.

3.2.3 철학의 관점

A 서양 철학

어둠 없는 빛이 있을 수 없듯이 죽음 없는 삶도 없다. 죽음이 없다면 그건 삶이 아니다. 모든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삶이 있는 것이다.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옛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내 곁에 없고 내가 죽는다면 내 자신이 존재하지 않기에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죽음 이후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 뿐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다. 빅뱅으로 탄생한 우주는 언젠가 소멸하여 죽음을 맞게 된다. 인간도 죽음의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필연적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감정적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다른 선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음을 깨달을 때 슬퍼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개인간의 숙명이라면 살아있음의 가치는 훨씬 크게 다가온다. 기적처럼 주어진 삶의 순간을 음미하며 충실히 사는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B 동양 철학

동양의 관점에서 하늘은 정신적인 세계이고 땅은 육체적인 세계이다. 인간은 하늘과 땅의 묘한 합체이다. 하늘과 땅이 인간이라는 존재 속에 모여 있는 상태가 삶이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현상이 죽음이다. 무형의 하늘에 해당하는 부분을 ‘혼’이라 부르고 땅에 해당하는 부분을 ‘백’이라 부른다. 죽으면 ‘백’은 제 고향이 땅이므로 바로 땅으로 들어간다. ‘혼’은 하늘로 돌아간다. 동양의 ‘혼’을 서양의학에서는 ‘정신’의 개념으로, ‘뇌’의 작용으로 보았다. 우리(동양)의 ‘혼백’ 사상은 머리카락 하나에도 적용된다. 곧 모든 존재 구석구석에 ‘정신’이 있다. ‘백’은 눈으로 확인된다. 곧 죽음은 몸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혼’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동양인은 혼이 ‘기’이므로 처음에는 생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흩어진다고 보았다. 백은 죽는 그 순간에 죽지만, 혼은 대개 4대는 간다고 보았다. 곧 세대(generation) 1대를 대략 30년으로 치면 120년은 산다고 보았다. 집에 사당을 모셔서 4대 봉사(奉事)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대 봉사는 특정한 개인의 존재는 유한하지만 이를 연결하면 무한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관련된다. 역사라든가 집안, 제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생각, 유한은 해결된다는 생각, 인간은 영원하다는 생각 등과 연결되면서 특정한 개인은 안심하고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

3.2.4 목사의 관점

A ‘나’에게서 벗어나기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를 너무 많이 생각한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관계, 내 억울함, 내 분함, 내 원망 등이 마음에 꽂고 있다. 구원은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구원은 ‘나’로부터 끊어지는 삶이다. 그게 답인데 그 과정까지가 쉽지 않으므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분을 데리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어둠에 묻혀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게 우리의 일과 영성이다. 닉 부이치치나 이지선 자매 등을 보고 희망을 얻는다는 게 불쌍사납고 이기적일 수 있으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빠져 있다가 남을 보면서 비로소 눈을 크게 뜨는 계기이기도 하다. 세상을 넓게 봐야 한다. 높이 올라가서 넓게 보고 멀리 봐야 한다.

B 죽음이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

박완서 작가에 따르면 죽음은 희망이다. 그녀가 죽음을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는 아들을 앞세우고 나서부터라고 전해진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박완서가 찾은 답이 바로 ‘죽음이 희망이다.’라는 진술이다. 죽음을 통해 사랑하는 아들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은 그녀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공했다. 박완서는 죽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다. 그녀는 슬픔이 있어서 기쁨이 있듯이 또 추(醜)가 있어서 미(美)가 있듯이 죽음이 없다면 삶도 없을 거라고 말한다. 박완서에게 죽음도 희망이 될 수 있는 까닭은 희망 없이는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죽음은 이 세상과의 이별이자 육체적 소멸을 경험하는 개인적 상실이다. 상실의 고통스러운 과정이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앞서간 사람들과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는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이다. 사별의 슬픔과 고통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다.

3.2.5 장례지도사의 관점

입관 전에 하는 마지막 인사 중에서 인상적인 것으로는 노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먼저 가서 기다려, 내가

곧 따라 갈게.”가 있다. 딸이 어머니에게 하는 “엄마 다음 생에는 내 딸로 태어나주세요. 내 딸로 태어나면 잘 해줄게요.”도 기억에 남는다. 가족들이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수의를 입고 있는 고인의 모습이 낯설거나 무서울 수도 있다. 평상시에 좋아하던 옷을 입히는 것도 가능하다. 아이들이 돌아간 아빠를 찾으면 사람은 누구냐 떠나게 되어 있고 아빠는 하느님이 먼저 데리고 가셨다고 알려주면 된다. 아이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소풍가듯이 아빠를 찾아가도 좋다. 아빠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시니까 할 말 있으면 하라고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다. 아이들도 이런 현실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3.2.6 기자의 관점

사형수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사형수는 형이 집행된 기결수가 아니라 영원한 미결수이다. 사형이 집행돼야 기결수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 사형 집행은 3월~5월이나 10월~12월에 이루어졌다. 사형집행일은 아무도 통보하지 않는다. 그날은 아침 운동이나 야외 사역 등이 없고 출입이 통제된다. 사형수는 멀리서 들리는 교도관의 발걸음 소리에서부터 혼이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교도관이 자물쇠를 열고 들어올 때 닢이 나가게 되고 “몇 번 가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신이 완전히 나간 상태가 된다. 당시 서울 구치소의 사형 집행 개시 시간은 10시였다. 사형장에 들어가면 예정된 순서대로 인정신문을 하고 그동안의 재판 진행과정에 대해서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최후의 진술을 한다. 최후의 진술을 할 때는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선해지고, 대부분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한다. 사형수 얼굴에 두건을 씌우고 목에 밧줄을 건다. 사형대에서 교도소장의 지시에 따라 버튼을 누르면 발밑의 널빤지가 빠지며 사형이 집행된다. 사형수 취재를 통해서 다음 질문을 하게 되었다.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걸까?’ 나는 의연하고 담담하게 가고 싶다. 그동안 감사했고 잘 살고 간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때부터 죽음을 불길하게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고 대비하는 사람으로서 죽음 명상을 한다. 이는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연결된다.

3.2.7 일반인(가수)의 관점

어른에게 배운 행복의 조건으로는 열심히 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것,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것 등이 있다. 이게 행복의 전부인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언제든 죽음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문

제를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 우리는 열심히 살라는 것, 올바르게 살라는 것 등 2가지를 배운다. 우리는 인생을 ‘길’에 비유한다. 길에는 시작이 있고 끝도 있다. 시작은 출생이고 끝은 죽음이다. 시작과 끝이 규명이 안 되면 중간에 흔들린다. 살아야 하는 이유,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에 대답할 수 있으려면 시작과 끝이라는 문제 곧 출생과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음의 Table 3-1과 Table 3-2는 죽음에 대한 전문가의 관점과 죽음 논의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3-1. Expert Perspectives and Death 1

N	Expert Perspectives
1	Medicine—Doctor
2	Medicine—Professor—Near Death Experience
3	Medicine—Professor—Forensic medicine
4	Physics
5	Philosophy—the West
6	Philosophy—the East
7	Minister—Getting away from Me
8	Minister—The reason death can be hope
9	Funeral Director
10	Journalist
11	Singer(ordinary man)

Table 3-2. Expert Perspectives and Death 2

N	Key to the Discussion of Death
1	The true value of life
2	Realization and insight
3	A lot of fighting for life
4	The most common state
5	Death is not something to fear.
6	The existence of an individual is finite, but if you connect it, it can be infinite.
7	You have to look at the world wide.
8	You're not alive without hope.
9	Everyone is bound to die.
10	Thank you for being alive, and I'll be humble and warm.
11	The problems of beginning and ending must be solved, namely birth and death.

3.3 4가지 기준에 의거한 4가지 유형의 전문가 관점

유튜브에서 수집한 동영상들은 공통적으로 ‘죽음’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웰에이징[well-aging]은 노화(老化)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며 나이 드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자기완성을 지향하며 존엄한 노년(老年)을 맞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누구나 노인(老人)[10]이 된다. 누구나 노화 또는 노년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대상 또는 상황이 죽음이기 에 죽음과 웰 에이징의 관련성은 긴밀하다.

본 연구의 주제로서의 ‘죽음’은 ‘삶’과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 인간의 삶은 출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 이르러 마감된다. 삶이 유지된다는 것은 죽음과의 경쟁 또는 긴장 관계에서 생명이 우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어느 순간 생명이 죽음과의 경쟁 또는 긴장 관계에서 패배하게 되면 삶은 마침내 종료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삶’과 ‘죽음’은 대조적인 상황인 동시에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웰에이징이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진행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면 웰다잉[well-dying]은 품위 있고 존엄한 삶의 마감 과정을 뜻한다.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서의 웰에이징과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로서의 웰다잉은 인간의 온전한 삶과 죽음을 완성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삶’은 ‘죽음’과 넘나들고 ‘웰에이징’은 ‘웰다잉’과 소통한다. 우리는 4가지 기준 곧 삶, 죽음, 웰에이징, 웰다잉 등에 의거하여 전문가의 관점 11개를 4가지 유형 곧 ① ‘죽음 집중’ 유형, ② ‘죽음—웰다잉 통합’ 유형, ③ ‘삶—웰에이징 통합’ 유형 그리고 ④ 삶, 죽음, 웰에이징, 웰다잉 등 ‘4가지 기준 통합’ 유형 등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4가지 기준과 4가지 유형에 의한 전문가 관점 분석은 Table 4-1과 Table 4-2로 정리할 수 있다.

3.3.1 ‘죽음 집중’ 유형

4가지 기준 중 온전히 죽음에만 집중하는 경우는 11개의 전문가 관점 중 단 1개이다. 물리학을 포함한 과학의 관점이 그것으로서 여기에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상태 곧 우주에서 가장 보편적인 상태이다. 곧 우주에서는 ‘죽음’이 상수이고 ‘삶’은 변수이다. 이와 같은 거시적인 관점은 일반적인 ‘웰다잉’, ‘웰에이징’의 개념 규정, 구분, 적용 등을 초월한다.

3.3.2 ‘죽음—웰다잉 통합’ 유형

4가지 기준 중 죽음과 웰다잉을 통합하려는 경우는 11개의 전문가 관점 중 2개이다. 의학 관련 교수의 견해 중 법의학 관점과 장례지도사의 관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학적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억울한 죽음을 없애는데 기여하는 법의학은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주체적으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웰다잉과 연결된다. 또한 장례지도사는 누구나 한번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을 가족과

같은 자연스러운 일상 패턴과 이어줌으로써 웰다잉을 조성한다.

3.3.3 ‘삶—웰에이징 통합’ 유형

4가지 기준 중 삶과 웰에이징을 통합하려는 경우는 11개의 전문가 관점 중 단 1개이다. 목사의 견해 중 ‘나’에게서 벗어나기의 관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목사의 관점에서 ‘죽음’ 특히 ‘자살’은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일과 연결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죽음’이 아닌 ‘삶’을 지향하려면 마음에서 자기를 덜고 생각에서 자신을 줄여야 한다. 진정한 ‘삶’은 ‘나’와의 거리가 확보될 때 가능할 수 있고, 이는 ‘웰에이징’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3.3.4 ‘4가지 기준 통합’ 유형

‘삶’, ‘죽음’, ‘웰에이징’, ‘웰다잉’ 등 4가지 기준 모두를 통합하려는 경우는 11개의 전문가 관점 중 7개이다. 의사 15인의 의견과 의학 관련 교수의 견해에서 근사체험이 눈에 띈다. 철학의 관점은 서양의 것이나 동양의 것 모두 4가지 기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유형에 속한다. 죽음을 희망으로서 수용한 목사의 관점도 이 유형에 포함할 수 있다. 기자의 관점은 죽음의 본질과 삶을 연결하고 웰다잉과 웰에이징의 동일성을 보여준다. 일반인(가수)의 관점 역시 왜 열심히 살아야 하고 왜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서 4가지 기준을 탐구한다. 다음 Table 4-1과 Table 4-2는 전문가의 관점에 내재하는 죽음, 삶, 웰다잉, 웰에이징 등 4가지 기준과 그것과 연결되는 4가지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4-1. Expert Perspectives and Four Criteria(Death, Life, Well-dying, Well-aging)

N	Expert Perspectives	Death	Life	Well-dying	Well-aging
1	Medicine—Doctor	0	0	0	0
2	Medicine—Professor—Near Death Experience	0	0	0	0
3	Medicine—Professor—Forensic medicine	0		0	
4	Physics	0			
5	Philosophy—the West	0	0	0	0
6	Philosophy—the East	0	0	0	0
7	Minister—Getting away from Me		0		0
8	Minister—The reason death can be hope	0	0	0	0
9	Funeral Director	0		0	
10	Journalist	0	0	0	0
11	Singer(Ordinary man)	0	0	0	0

Table 4-2. Expert Perspectives and Four Types (①, ②, ③, ④)

N	Expert Perspectives	*①	*②	*③	*④
1	Medicine—Doctor				0
2	Medicine—Professor—Near Death Experience				0
3	Medicine—Professor—Forensic medicine		0		
4	Physics	0			
5	Philosophy—the West				0
6	Philosophy—the East				0
7	Minister—Getting away from Me			0	
8	Minister—The reason death can be hope				0
9	Funeral Director		0		
10	Journalist				0
11	Singer(Ordinary man)				0

* ① "Focus on death" type
 ② "Death-well-dying integration" type
 ③ "Life-well-aging integration" type
 ④ "Integration of 4 criteria" type : "Life," "Death," "Well-aging," and "Well-dying"

3.4 죽음 논의 동영상의 대중성

유튜브에 업로드 된 죽음 관련 동영상들을 조회 수, 댓글 개수, 호감도 횟수, 비호감도 횟수 등 4가지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동영상을 분석하면 대중들의 관심이나 호기심 또는 선호도 등을 알 수 있다. 이는 유튜브 동영상의 대중성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표 또는 기준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조회 수 1위는 13-12 이고, 13위는 13-13이다. 댓글 개수 1위는 13-3이고, 13위는 13-13이다. 호감도 횟수 1위는 13-1이고, 13위는 13-13이다. 비호감도 횟수 1위는 13-12이고, 13위는 13-13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죽음 논의 동영상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13-1이 호감도 횟수 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다수의 죽음을 관찰한 종양내과 전문의의 소중한 견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의미한다. 또한 13-3이 댓글 개수 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물리학 또는 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12는 조회 수 1위와 비호감도 1위를 동시에 기록하여서 주목을 끈다. 사형수의 마지막 장면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한 결과 조회 수 선두를 기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죽음으로서의 사형을 거부하려는 대중들의 무의식이 작동한 결과 비호감도 1위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토론 게시판의 게시물 인기도에 관한 선행 연

구에 따르면 댓글이나 추천이 있는 게시물은 그렇지 않은 게시물보다 수명이 더 길었고 이는 댓글수와 추천수가 게시물의 생존기간이나 조회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11]. 이와 같은 사례는 유튜브 동영상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리 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다음 Table 5-1과 Table 5-2는 죽음 논의 동영상의 대중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Table 5-1. The Popularity of the Video on Death Discussion 1

N	Views(Rating)	Comments(Rating)
13-1	700,160(③)	852(②)
13-2	737,828(②)	816(③)
13-3	517,813(④)	1,619(①)
13-4	50,875(⑨)	144(⑥)
13-5	291,751(⑤)	422(⑤)
13-6	86,688(⑦)	115(⑧)
13-7	10,663(⑫)	26(⑪)
13-8	70,461(⑧)	115(⑧)
13-9	41,431(⑩)	23(⑫)
13-10	115,704(⑥)	134(⑦)
13-11	40,471(⑪)	71(⑩)
13-12	1,040,802(①)	797(④)
13-13	1,181(⑬)	18(⑬)

Table 5-2. The Popularity of the Video on Death Discussion 2

N	Like(Rating)	Dislike(Rating)	Date
13-1	13,985(①)	410(②)	2021.09.03.
13-2	7,094(④)	158(⑤)	2021.09.03.
13-3	10,593(②)	289(③)	2021.09.03.
13-4	800(⑩)	33(⑨)	2021.09.03.
13-5	6,022(⑤)	174(④)	2021.09.03.
13-6	1,868(⑥)	112(⑥)	2021.09.03.
13-7	447(⑫)	14(⑪)	2021.09.03.
13-8	973(⑨)	34(⑧)	2021.09.03.
13-9	639(⑪)	25(⑩)	2021.09.03.
13-10	1,475(⑦)	45(⑦)	2021.09.03.
13-11	1,169(⑧)	7(⑫)	2021.09.03.
13-12	9,249(③)	769(①)	2021.09.03.
13-13	96(⑬)	0(⑬)	2021.09.03.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튜브에 공개된 동영상들을 조사하고 분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동영상은 공통적으로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동시에 죽음이라는 주제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고찰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죽음을 다루는 동영상들을 4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방법은 동영상에서 죽음을 이야기 하는 화자(서술자)의 직업(일)에 의한 분석이다. 둘째 방법은 죽음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특정한 관점에 따른 분석이다. 셋째 방법은 4가지 기준에 의거한 4가지 유형의 전문가 관점 분석이다. 넷째 방법은 죽음 논의 동영상의 대중적 영향력 분석이다.

죽음이라는 인류의 영원한 화두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다룬 유튜브 동영상들을 조사하고 분석한 종합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영상에서 죽음 논의를 진행하는 25인의 화자(서술자)의 범위에는 의사, 의학 관련 교수, 의학과 무관한 교수, 목사, 철학자, 기자, 장례지도사, 가수(일반인)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에서 의사와 의학 관련 교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둘째,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동영상 화자들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죽음 논의를 다채롭게 전개하였다. 핵심 사항으로는 삶의 진정한 가치, 두려워할 필요 없는 죽음, 희망의 소중함, 죽음의 자연스러움 등이 있다. 셋째, 4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11개의 전문가 관점을 4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하였다. 곧 삶, 죽음, 웰에이징, 웰다잉 등이 종합적으로 연결될 때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넷째, 죽음 논의 동영상에 내재하는 대중성을 조회 수, 댓글 개수, 호감도 횟수, 비호감도 횟수 등 4가지 지표로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

유튜브 매체에 주목한 본 연구와 비교하여 고찰할 수 있는 최근 선행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곧 유튜브 관광콘텐츠 품질과 정보원 특성이 시청 만족, 지속적 시청 의도 및 미래 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30]라든가 어린이의 유튜브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31] 또는 유튜브 홈트레이닝 콘텐츠의 조회수 특성에 관한 연구[32] 등을 본 연구와 함께 참조하면 향후 유튜브 관련 융복합 연구를 진행할 때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인들은 TV, 신문, 포털, 유튜브, 스마트폰[12,33], 소셜 미디어[23] 등 다양한 매체들이 무한 경쟁에 몰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튜브는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매체로서 그곳에 탑재되는 동영상들은 해당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

튜브 동영상은 시청자 또는 사용자의 선호도와 비선호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죽음 논의의 출처로서 유튜브 동영상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죽음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삶, 웰다잉, 웰에이징 등과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한국인의 건강한 삶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정 시기에 추출한 13편을 연구하였다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튜브 미디어에 업로드 된 동영상들이 희망으로서의 삶과 자연스러운 죽음 그리고 웰에이징과 웰다잉 등 4가지 키워드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場)임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19[13,17-19, 28-29]가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재난의 시대, 비대면[24-27]의 시대에 처한 한국인의 스트레스[14,16,22] 감소, 심리적 안녕감[15] 증가, 회복 탄력성[20] 신장, 사회적 유능감[21] 발달, 건강 유지 또는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REFERENCES

- [1] K. S. Kim & J. Y. Ha, (2020), YouTube as a news medium : A study on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among TV, newspaper, portal, and YouTube adopting the niche theory,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4(6), 189-236.
- [2] J. E. Kim, (1999), Koreans view of life and death, *Journal of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16, 113.
- [3] K. H. Kim & Y. H. Park, (2020), An Analysis of Well-Dying Concepts in Korean Society,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7(03), 231.
DOI : /10.5953/JMJH.2020.27.3.229
- [4] Jin-Hee Ku et al., (2021),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by Adult Life Cycle for Well-aging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5), 258.
DOI : /10.5762/KAIS.2021.22.5.257
- [5] C. H. Ryu & S. B. Kim, (2021), A Research on the Design of the Youtube Video Contents Based on the Peak-End Rule and Users' Responses,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6(2), 43-56.
DOI : /10.9723/JKSIS.2021.26.2.043
- [6] T. H. Kim & S. Y. Bae, (2020), A Study on YouTube as an Extended Meaning Learning Content Platform : Focusing on the Learner's and the Instructor's Point Of View, *The Korean Journal of animation*, 16(4), 125-140.
DOI : 10.51467/ASKO.2020.12.16.4.125

- [7] S. Y. Chun, (2003), The Modern Way of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of Death : In Case of Medical Institution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7(1), 171-199.
- [8] J. C. Park, (2017),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Attitude of Modern Medicine toward Death—in the Perspective of Existentialist Psychology—, *Philosophy of Medicine*, 24, 39-76.
- [9] J. M. KIM, (2019), Religious Studies and Medical Humanities : Searching for the Role of Religious Studies in Medical Education, *Studies in Religion*, 79(3), 7-42.
DOI : 10.21457/KARS.2019.12.79.3.7
- [10] S. H. Shin & S. H. Shin, (2021), Stigma and Depression in Elderly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8).
DOI : 10.5762/KAIS.2021.22.8.216
- [11] Y. J. Lee, I. J. Jung & G. Woo, (2012), A Model to Predict Popularity of Internet Posts on Internet Forum Sites, *The KIPS Transactions : Part D*, 19(1), 113-120.
DOI : 10.3745/KIPSTD.2012.19D.1.113
- [12] K. I. Kim & S. W. Yoon, (2021), Effects of Product and Corporate Factors on Smartphone Repurchase Intention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9).
DOI : 10.5762/KAIS.2021.22.9.532
- [13] E. J. Yang, J. W. Park & S. Y. Moon, (2021), Music Therapy as a Psychological Prevention Resource Recognized by Social Workers in the COVID-19 Crisi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9).
DOI : 10.5762/KAIS.2021.22.9.638
- [14] S. K. Park, (2021), Job Stress and Its Related Factors of Hair Design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9).
DOI : 10.5762/KAIS.2021.22.9.719
- [15] K. N. Kim, (2021), Factors Influencing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8).
DOI : 10.5762/KAIS.2021.22.8.130
- [16] H. W. Weon & H. K. Son, (2021), The Effect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ress Quotient on Emotion Quotient in Introvert-Extrovert Preschoole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8).
DOI : 10.5762/KAIS.2021.22.8.208
- [17] B. S. Lee, (2021), The learning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who were in the process of converted face-to-face course to online course within the circumstances of COVID-19, *The Journal of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09).
DOI : 10.5762/KAIS.2021.22.9.74
- [18] Y. K. Kim, Y. G. Lim & Y. J. Boo, (2021), Factors Affecting the Practice of Coronavirus(COVID-19) in a Community Population, *The Journal of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08).
DOI : 10.5762/KAIS.2021.22.8.478
- [19] J. S. Choi, D. M. Kim, Y. K. Kim, S. M. Jin & J. Y. Ha, (2021), An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 and Needs for Improvement of Non-face-to-face Classes, Career, and Job Guidance after COVID-19, *The Journal of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07).
DOI : 10.5762/KAIS.2021.22.7.68
- [20] J. H. Cho & O. H. Cho, (2021), The Effect of Isolation, Depressi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on Career Ident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9).
DOI : 10.14400/JDC.2021.19.9.435
- [21] D. H. Kim, (2021), Longitudinal Effects of Peer Play Behavior during Toddlerhood on Social Competence and Adaptation to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9).
DOI : 10.14400/JDC.2021.19.9.361
- [22] Y. J. Lee, (2021),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Levels and the Sustainability of Education of Adolescent Female Single-parent: The Moderating Effect of Leisure, Culture and Info-communication Cos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9).
DOI : 10.14400/JDC.2021.19.9.349
- [23] S. L. Lee, (2021), The Meanings of Fashion on the Social Media of Virtual Influencer Lil Miquel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9).
DOI : 10.14400/JDC.2021.19.9.323
- [24] J. E. Lee & S. I. Kim, (2021), A case study on service activation strategy of online and offline integration stores in the non-face-to-fa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9).
DOI : 10.14400/JDC.2021.19.9.299
- [25] J. S. Jang & J. H. Chung, (2021),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Cases of Non-Face-to-Face Online Craft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9).
DOI : 10.14400/JDC.2021.19.9.277
- [26] N. Y. Kim & S. I. Kim, (2021), A Study on User Experience of Online Education Programs with Elementary Schools and Art Museums in Non-Face-to-Fa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8).
DOI : 10.14400/JDC.2021.19.8.311
- [27] J. H. Ha & S. I. Kim, (2021), A study on the increase of kiosk user experience in Non-face-to-face Era for the Elderly -Focused on the McDonald Kiosk-,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8).
DOI : 10.14400/JDC.2021.19.8.285
- [28] W. H. Choi, N. J. Je, Y. M. Seo & D. Y. Lee, (2021), Factors Related to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9).
DOI : 10.14400/JDC.2021.19.9.229

- [29] Mo Yanting, Xu Yujia & Y. K. Lee, (2021), A Study on the Effect of System Characteristics of Online Lectures on Lecture Satisfaction in the COVID-19 Crisis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CT Utilization Abi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9).
DOI : 10.14400/JDC.2021.19.9.043
- [30] J. H. Lim & S. H. Han & J. H. Yoon, (2021), The Effect of YouTube Tourism Contents Quality and Information Source Characteristics on Satisfaction with Viewing, Continuous Viewing Intention and Future Visit Intention,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30(7).
DOI : 10.24992/KJHT.2021.10.30.07.217
- [31] S. S. Joe & B. H. Kim, (2021),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the Amount of Children's YouTube,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n(JKEIA)*, 15(7).
DOI : 10.21184/jkeia.2021.10.15.7.45
- [32] J. H. Kim, (202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Views of YouTube Home Training Content: Focusing on Exercise Type and Optimal Video Duration, *Korean Society for Sport Management*, 26(5).
DOI : 10.31308/KSSM.26.5.22
- [33] J. H. Park. (2021), Self-Awareness and Coping Behavior of Smartphone Dependence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
DOI : 10.5762/KAIS.2021.22.2.336

권 온(On Kwon)

[정회원]



- 2012년 2월 : 고려대학교(문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전임연구원
- 관심분야 : 웰다잉, 웰에이징, 융합 연구, 문학
- E-Mail : 02kwon@hanmail.net

강 경 희(Kyung-Hee K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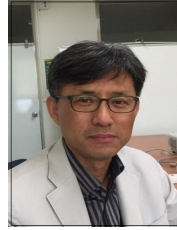
[중회원]



- 2010년 2월 : 경북대학교 미생물학과(이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감염관리, 치위생, 웰다잉, 웰에이징
- E-Mail : dhkhkang@konyang.ac.kr

송 현 동(Hyeon-Dong S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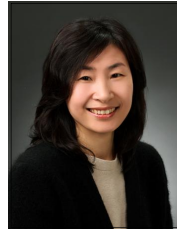
[정회원]



- 2006년 2월 : 한국학중앙연구원(철학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문화관광, 웰니스관광, 죽음학, 종교문화, 웰에이징
- E-Mail : ritual@konyang.ac.kr

구 진 희(Jin-Hee, Ku)

[정회원]



- 2001년 : 충남대학교 컴퓨터과학교육 석사
- 2010년 : 동 대학원 공업(컴퓨터)교육 박사
- 2010년 ~ 현재 : 목원대학교 소프트웨어교양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컴퓨터교육, 소프트웨어공학, 빅데이터
- E-Mail : jhku@mokwon.ac.kr

김 광 환(Kwang-Hwan Kim)

[중회원]



- 2001년 2월 : 계명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웰다잉, 노인, 삶의 질, 치매, 웰에이징
- E-Mail : kkh@konyang.ac.kr